

지 역 경 제 일 지

10.23 강원특별자치도, 관광·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

-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과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·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* 지정을 추진

*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한 지역의 관광·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(F-2) 자격을 부여하고,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(F-5)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
- 도는 이번 제도에 따라 관광·휴양시설 외국인투자 확대, 지역경제 활성화, 관광 경쟁력 상승 등을 기대

10.27 바다와 다시 만난 '강릉커피축제' 성료

- '제16회 강릉커피축제'가 10.24일부터 27일까지 방문객 44만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

- 이번 축제는 '바다와 다시 만나다'는 슬로건으로 그동안 실내에서 진행되던 행사를 바닷가(강릉커피거리~송정해변 간 1.2km구간)로 옮겨 진행

- 행사에 참여한 150여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물품이 모두 소진되는 등 높은 판매율을 보여 커피축제의 경제효과를 확인*

* '18년도에는 50만명이 방문하여 약 83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록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

10.30 강원특별자치도, 강원특자도법을 활용하여 최초로 4개 지역 규제 해제

-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첫 권한 행사를 통해 강릉, 철원, 양구, 인제 총 4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*로 최초 지정

*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(2024.6.8.시행)의 핵심사항으로, 절대농지(농업진흥지역)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제도

- 4개 지구에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,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,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,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계획

— 총 사업부지 143만 m^2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만 m^2 (43%)를 차지

- 도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4,000만 m^2 의 절대농지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·군에 신청을 독려하는 동시에 특례시한 연장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